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성경: 잠 1:1, 7, 2:4-5, 3:5-10, 8:13, 9:10, 10:27, 14:2, 26-27, 15:16, 33상, 16:6, 19:23

- I. 사람이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원칙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곧 주님을 받드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며 다음 시대에 그분을 우리의 보상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주님의 미소를, 다음 시대에서는 주님의 보상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 잠 1:1, 7, 엡 4:30, 고후 5:9-10.
- A.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운 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사 43:7).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되며, 또한 다른 이들의 고난에 마음이 움직여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된다.
- B.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죄들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이 자아를 거절하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죄를 범했는지 혹은 세상적인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일까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 마 16:24, 고후 4:5.
- C.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면, 즉 그분을 받든다면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 잠 1:1, 7, 2:4-5, 3:5-10, 8:13, 9:10, 10:27, 14:2, 26-27, 15:16, 33상, 16:6, 19:23.
- II. 이사야는 여호와와 영, 곧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조언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께서 그리스도 위에 머무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 사 11:1-2.
- A. 그 영은 주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셨으며, 그분과 하나이셨다. 그분은 그 영을 따라 행하셨고, 그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 그 영에 의해 그 영을 통해 사셨다. 이사야서 11장 2절은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위에 언급된 모든 속성들을 지니신 그 영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눅 4:1, 14, 10:21, 요 1:32, 마 12:28.
- B. 예수님은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공손하고도 순순히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셨다. 그분은 또한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셨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넘치게 공급하는 영,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 영께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주 예수님의 인간 생활과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 사 11:2-3, 빌 1:19.
1.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셨을 때 주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요 5:19),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시며(4:34, 17:4),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14:10, 24), 자신의 뜻대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며(5:30),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신다고(7:18) 말씀하셨다.
 2.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활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이다(엡 4:20-21). 우리는 실재의 영이신 주님께, 우리를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분의 삶을 체험하는 실재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요 16:13, 빌 2:5-11).
 3. 날마다 우리는 아버지께 완전히 전적으로 열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이 영은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서 주 예수님의 인간 생활과 사역을 포함하신다 — 눅 11:5-13.

III.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 잠 3:5-8, 26, 16:1, 9, 20, 33, 19:21, 30:5-6.

- A.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들을 곧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치료제가 되고 우리의 뼈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 B.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 그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 /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 그 잎이 항상 무성하여 /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 렘 17:7-8.
1.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 렘 2:13.
 2. 그 나무는 물에 담긴 모든 풍성을 흡수하며 강가에서 자란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배로 수행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림이다. 신성한 분배를 받기 위하여 나무들인 우리는 물이신 하나님을 흡수해야 한다 — 비교 고전 3:6.
 3. 나무들인 우리 안으로 분배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으로 조성하여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골 2:19).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동일한 요소와 본질과 조성과 모양을 갖게 되어 하나가 된다(계 4:3, 21:11).
- C.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좋은 것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복이 있다(잠 16:20).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분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발이 걸리지 않게 지켜 주실 것이다(3:26).
- D.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성경을 통해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다(잠 2:3-5, 요 5:39-40).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신 6:2).

IV.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한 주님을 공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해야 하며, 그러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의 포도주 통은 새 포도주로 넘쳐 날 것이라고 말한다.
- B. 우리는 장래를 위해 보물을 쌓아 두려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소산의 적어도 십분의 일, 곧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드리는 데 언제나 넉넉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 말 3:7-12, 고후 9:6-8.
- C. 우리는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해야 한다. “오, 여호와님! 주님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 저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렵니다. /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 시 86:11.
- D. 우리는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감히 만지지 않는 것이다 — 고후 7:1, 6:17.
- E.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것과 관련된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누리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 엡 5:18-21, 시 2:11-12, 히 12:28.
- F.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그분의 믿는 이들

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심판은 영원한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시대적인 보상에 관한 심판이 될 것이다 — 고후 5:10, 고전 4:4-5, 3:13-15, 롬 14:10.

G.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장수하는 길이다(잠 10:27).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 하시며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공급하신다(시 103:11, 13, 17, 85:9, 60:4, 잠 14:26-27, 시 115:12-13, 34:9, 111:5).

H.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예로서 노아(히 11:7), 아브라함(창 22:12), 요셉(42:18), 다윗(시 2:11-12, 5:7), 느헤미야(느 1:11, 5:9, 15), 초대 교회(행 9:31) 등을 들 수 있다.

V. 주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은 생명의 원천이자(잠 14:27)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해 주는 생명나무로서(11:30), 사실상 기쁨의 근원이다(시 2:11).

A.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사람을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 안으로 피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에서 행하는 것이다(잠 2:19, 5:6, 10:17, 14:27, 19:23, 시 16:11). 생명의 길은 생명나무의 길이며, 그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다(잠 3:13, 18, 11:30, 13:12, 15:4).

B. 주님을 경외하면 생명에 이른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찾는 길)이다. 생명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삶으로써 생명을 접촉하고 얻기 위한 것이다.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대로이다 — 잠 19:23, 마 7:13-14, 시 84:5.

C. 죽음의 길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길이다. 이 나무의 근원은 사탄이며 이 나무는 우리의 자아에서 나타난다. 자아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고, 어둠의 길로 행하는 것이며, 생명이 전혀 없는 것이다 — 잠 2:13, 3:5-7, 14:12, 16:25, 엡 5:2, 8-9.

VI.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한마음과 한길을 주시어, 우리뿐 아니라 우리 뒤를 이을 자손의 선을 위하여 모든 날 동안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그분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신다 — 렘 32:39-40.

A.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우리는 모두 한마음,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으로 조성된 마음과, 한길, 곧 신성한 역량을 지닌 내적인 생명의 법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을 가져야 한다 — 렘 32:39, 31:33-34, 요 14:6상, 롬 8:2.

B. 이 한마음과 한길이 한마음 한뜻이다(행 1:14, 2:46, 4:24, 롬 15:6). 분열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취하는 데서 기인한다.

C.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곧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그분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신다 — 렘 32:40.

D.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조언과 그분의 언약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분의 계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만 그분의 친밀한 조언을 주신다 — 시 25:12, 14.

VII.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은 것의 놀라운 두 가지 결과이다.

A.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을 대담하고 무모하게 만들지 않는다.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한다. “용서가 주님께 있으니 / 이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시 130:4.

- B.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다. 누가복음에서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이유는 그녀가 주님께게서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 눅 7:39-50.
- C.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용서하실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경외하게 되며,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경외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부정적인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를 삼가며,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VIII. 잠언 31장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두 가지 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한 면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위엄 있는 사람인 왕과 같이 되어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야 하며,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안배하고 관리하며 돌보고 공급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 A. 잠언 31장 3절부터 9절까지는 통치하는 왕에 대해 말하는데, 이 왕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다른 이들의 권리를 위해 말하며 정의를 베푼다. (이 왕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이들을 예표한다.) 오직 이러한 부류의 사람만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 1. 우리의 주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제한 아래 계셨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실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한받음으로 우리 자신을 처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 2. 왕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림받고 통제받아야 했다. 이 원칙은 교회들 안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신 17:14-20.
 - a.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재조성되어야 한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 있게 될 것이다.
 - b. 그럴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결정과 함께하실 것이며, 장로들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교회의 사무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관리가 신정(神政)이다.
- B.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한 현숙한 여인을 묘사한다(12:4, 19:14, 룻 3:11). 이 여인은 지혜롭고 친절하고 근면하고 유능하며, 자신의 가족을 위해 안배하고 관리하고 공급할 수 있다. “그 여인의 값어치는 산호보다 훨씬 높다.”(잠 31:10) 그 여인의 영광은 그녀의 모든 동류들보다 더 뛰어나다(29절). 이 현숙한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한다.
 - 1. 현숙한 여인의 주된 특징은 그녀가 (두려움이 가득한 존경심으로 주님을 경건히 경배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게 된다.” — 잠 31:30.
 - 2.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신뢰한다. “그 여인은 사는 모든 날 동안 / 남편에게 선을 행할 뿐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며”(잠 31:12), “그 여인의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면 /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다.”(23절)
 - 3. 이렇게 현숙하고 현명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온다(잠 12:4). 그 여인의 자녀들과 남편이 일어나 그 여인을 칭송한다(31:28). 그 여인의 남편은 또한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며 그녀를 칭찬한다(29절).
 - 4. 남편은 아내의 ‘두려운 마음을 지닌 순결한 생활 방식’을 눈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아내는 머리를 땅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걸치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 벧전 3:1-4.

5.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자매들은 ‘단정한 옷차림에 염치와 정숙(자제심)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 요란하게 꾸민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도록 선행으로 단장해야 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심,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항목이다 — 딤후 2:9-10.
 6. 나이 많은 여자들은 행실 곧 몸가짐이 경건해야 하며, ‘그래야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집안일을 잘하게 하며 선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딤후 2:3-5.
- C. 이기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왕과 같아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과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치와 영광을 지닐 것이다.